

2018 년 3 월 17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9) 여호수아: 이제 유업의 땅에서”(수 21:43-45)

<도입>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생활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상속)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이 성취된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영적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

- 1. 1:1~5:15 요단강을 건너다
  - 요단 동편 땅 지정 - 여리고 정탐 - 도강 - 할레(길갈에서)
- 2. 6:1~13:7 유업(땅)의 정복
  - 여리고 - 아이성 점령 - 기브온과 화친조약 - 남방/북방 점령
- 3. 13:8~21:42 유업(땅)의 분할
- 4. 21:43~24:33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권면

[1] 왜 유업(유산)인가?

성경은 땅의 창조주(주인)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유업(기업, 유산(새번역))은 가나안 땅으로 조명됩니다.

유업을 받는 대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업을 받는 조건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유업에 대해 무지하거나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광야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유업에 합당했습니까?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불평, 원망, 비관,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를 낳습니다. 유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광야 2 세대는 1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다.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가치가 세속적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결정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2 세대의 신앙의 특징

- (1) 여호수아서의 어려운 점은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을 전멸하고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헤렘을 이해하기 위해 확실히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i.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모든 생명의 주인.
  - ii. 죄로 멸망하기 전까지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심. 폭력, 만행, 인신제사, 매춘 등을 거두어야 함
  - iii. 죄의 땅 위에 하나님의 합당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심판은 불가피함
- (2) 순종의 본: 도강 후 여리고 전투 전에 길갈에서 할레 받습니다(5 장). 매우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 (3) 9 장 기브온 족속이 지도자들을 속여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얼마 후 그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9:19 이하**를 보면 그들은 대화로서 하나되어 기브온을 돕기까지 협력합니다.
- (4)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이 부족하다며 따집니다. **17:14 이하** 여호수아의 조언에 잘 따라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 (5) **22 장**: 땅 분배가 끝난 후,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갓, 동 므낫세 지파들에게서 심각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이 자기들만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쪽 사람들은 덜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연유를 따지며 땅이 안 좋으면 우리 것 나눠 줄테니 넘어오라고 말합니다(16~20 절).

그러자 동쪽 지파 리더들이 말합니다(24~25 절, 27-28 절). 그러자 서쪽 대표들이 기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을 쌓고 안 쌓고의 문제는 겉으로 심각한 행위지만 이것을 따지지 않았습니 다. 대표들이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고했을 때,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동서로 갈라질 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이럴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기 땅을 나누어 줄 용의가 있었습니다(**배려와 나눔**). 그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통찰은 **정확**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앙은 삶의 **유연성**을 갖게 합니다. 가나안 1 세대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유업자의 수준이고 의식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유업을 약속 받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요구됩니다.

**[3] 2 세대에 관한 평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별 설교에서,

**23:8**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 성경에 드물게 나오는 칭찬의 표현입니다.

**삿 2:6-10** 7 절(새번역) - ‘하나님을 잘 섬겼다’(x2); 10 절 - 그들이 죽고 난 후 일어난 새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2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업의 가치를 잃습니다. 그리고 곤경에 빠집니다. 마치 믿지 않았던 때와 같은 억압, 착취, 폭력을 당합니다.

**<맺음>**

여호수아서는 구원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유업(가나안)을 합당하게 취하고 누리는데 대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바른 유업자로서의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소통, 배려하며 하나되는(화목) 것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유업은 영생의 quality 입니다.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인생을 유업으로 삼고 그 안에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소통을 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삶에는 유업의 축복과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광야 2 세대(가나안 1 세대)에 관한 여호수아 이야기 중에서 인상에 남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2.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진정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나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유업이 진정한 유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